

죽음을 뛰어넘은 사랑



송애자
(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자 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시신
 기증을 결심한 그분을 호스피스 과장님
 께 소개받고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동료
 봉사자와 같이 병실 문을 노크했다. 거므스름
 하고 황달기가 있는 얼굴모습, 깡마른 체구,
 곳곳하게 앉아있는 모습에서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봉사자임을 소개하고 수심에
 가득찬 부인에게도 인사를 나누었다. 간단한 인
 사말, 날씨, 가족 관계 등을 나눈 첫 만남이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날 때마다 신앙 이야기, 성인
 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랫동안 냉담하였음
 을 고백했고 다시 성체를 모시고는 굉장히 기
 뻐하였다. 부인은 직장에 나가고 곱게 생긴 대
 학생 딸이 늘 간병을 하고 있었다. 미소짓는
 맑은 표정으로 아빠 곁을 지키는 딸이 있기에
 환자의 모습은 흠어짐이 없었다. 어느날인가
 손톱이 길기에 “손톱을 깎아 드릴까요?” 하니
 “짜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했다. 시신기증을
 하기로 하여서 유품으로 손톱을 남기려함을
 알아채고 마음이 아팠다. 곧 여름 방학이 되면
 학교선생님인 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
 어서 좋겠다고 말하자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직장 생활로 고달픈 부인을 만나면서 서로 힘
 들고 상처도 많이 있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 덜 괴로울 것 같다고 위로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병원에서 퇴원 입원을 여러번
 반복하면서 특히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하면
 고통을 호소하곤 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의 고통
 을 들어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
 닫게 되었다. 복수가 차고 진통제 없이는 일어
 나지도 못한다는 호소에 병원의 도움을 받으
 라는 말 밖에는 아무일도 할 수 없었다. 입원,
 퇴원을 거듭하면서 6개월이 지난 어느날 집으
 로 방문했을 때 부인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환자는 응접실에 누웠다 일어나 앉으면서 “얼마나 아파야 죽어요?” 했다. 그 표정은 죽음보다 통증을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저는 하느님이 계심을 느낍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지내면서 고통을 기쁨으로 받고 사는 신부님, 수사님, 수녀님을 만날 때마다

수 상태를 오락가락 하면서 본인이 가고자 했던 길을 어머니의 만류로 포기 했다는 말도 하면서 마음 속에 있는 한을 털어 냈다. 임종이 가까워짐을 느끼고 미리 준비한 옷을 갈아 입히고 가족들에게 하느님께 편히 가시도록 작별 인사를 하게 했다. “여보,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귀에 대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 극도로 심한 임종의 고통에서 해방 되었다. 장례미사 강론 중에 사체 기증이 왜 대단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다. 모든 것을 놓고 가는 것이 죽음이며 모든 사람이 가고 싶고 부끄러워하는 부분까지 보여 줄 수 있는 용기를 높이 산다고 했다. 장례후 유해를 가톨릭 의과대학에서 모셔가고 유가족들과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집으로 가서 연도를 드렸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큰 공포로 다가오고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생애를 마무리하는 나와 모든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도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요.” 하고 말하자 그곳에 가고 싶다고 했다. 1월 1일 새벽 진통제를 먹고 기도를 하였더니 통증이 없어져서 손수 운전을 하여 가족 모두 미사에 참여했다. 영성체 후 성혈을 영함은 처음이라고 감격해 하던 모습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며칠후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정성어린 간호, 병원 수녀들의 따뜻한 배려, 봉사자들과의 만남 중에 늘 웃으면서 농담을 하고 또 부인 걱정했다. 부부간의 짙은 사랑에는 미움, 원망, 서러움, 배신감 등 여러가지 감정이 어우러졌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구정 다음날 혼

이들에게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의 이별을 받으면서 떠나는 평화로운 죽음이 선종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고 큰 뜻을 펼 그분, 남편과 아버지의 큰 뜻을 따라 사랑으로 떠나보낸 가족들의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삶이 더욱 복되기를 빈다.